

영아 유기 원인은 출산 사실 숨기기·경제적 어려움

김윤신 조선대의대 법의학 교수, 유기·유기치사 판례 20건 분석 미혼 18건·기혼 2건 대다수가 20대... 실형 1건·집행유예 19건

전국에서 유령영아(출생미신고 아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아를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도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는 산모는 대다수가 20대이며, 아이를 버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신 조선대 의과대학 법의학고실 교수는 지난 5월 발간된 대한법의학회지에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영아 유기와 영아 유기치사 판례 91건을 모은 뒤 상·하급심 중

복이거나 세부 정보가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고,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추려 분석했다.

그 결과 영아 유기 당시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으로 65%를 차지했다. 30대가 3건, 10대가 2건, 40대가 1건 순이었다.

미혼은 18건, 기혼은 2건이었다. 기혼 2건 중 1건은 불륜 관계에서의 출산이었으나 다른 1건은 부부의 임신과 출산이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기한 산모는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이 미 두 차례 영아를 유기한 전적이 있었다.

영아를 유기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12건)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는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가족(1건), 계부(1건), 배우자(1건) 등이었다.

연구팀은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산모에게는 출산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봤다.

영아를 유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하기 어렵다'(8건)가 꼽혔다.

20건 중 실형은 1건에서만 선고됐고 19건은 집행유예였다.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산모가 간조조무사로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20건 중 2건, 즉 10%에서 영아 유기 범행이 재발했다. 영아 유기 범행을 다시 저지른 이유는 경제적 곤란이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

전남도 '남도아이 지킴이단' 발대식... 아동보호 다짐

전남도는 지난 7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남도아이 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가 미래 자살인 아동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남도아이 지킴이단'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수립한 '전남도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특히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읍면동 단위로 인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아동학대 상황 인지 시 신고 및 112 신고, 학대의심 아동 발견 시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역할을 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발대식에서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는 마음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며 "남도아이 지킴이단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처럼 전남 대표 도민 행복시책이 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영국·오스트리아서 430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

전남도가 도내 수출 유망기업 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 영국과 오스트리아에 10개 기업을 시장개척단으로 파견, 43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시장개척단 연 식품 7개 기업과 화장품 3개 기업이 참여했다.

파견 기업은 구매자 발굴 가능성, 수출 준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지난 한 달 동안 잠재 구매자 발굴과 매칭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면서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상담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10개와 현지 구매자 35개 기업 등 총 45개 기업이 참가해 1대1 상담을 진행했으며, 20만 달러 수출 계약과 410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지난 6월 27일 영국 런던 상담회에선 (주)골든힐이 쌀과자 등 전남 식품 300만 달러, 해산이 김스넥 10만 달러, (주)메사코사가 매화수화화장품 10만 달러, (주)마린테크노가 플라센화장품 50만 달러, 이노플릭스가 해초화장품 10만 달러 등 5개 기업이 38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이어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선 (주)해농이 20만 달러 상당의 김밥김 수출 현장계약을 했고, 추가로 해산이 김스넥 10만 달러, (주)마린테크노가 플라센화장품 10만 달러, 이노플릭스가 해초화장품 10만 달러 등 3개 기업이 3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이밖에 바다손에(주)는 김스넥 및 해초샐러드, (주)해농은 김밥김과 조미김, 완도팜은 미역, 다시마, 전복, (주)해정정은 미역면, 다시마면, (주)보향다원은 유기농 녹차를 비롯해 유럽 시장 진출을 타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

본사인사

▲ 김창원 : 서부취재본부 영광주재 기자 (7월 10일자)



'한땀한땀' 빛고을핸드메이드 페어 제12회 빛고을핸드메이드 페어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9일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시, 지역대표 유니콘 기업 키운다

창업기업 21일까지 모집...사업자금·해외시장·투자유치 등 지원

광주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키우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G-유니콘 광주 유니콘기업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광주지역 내 창업기업은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시행하는 'G-유니콘 사업'은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최대 2억원 이내 사업화자금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대기업 개방형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창업기업으로, 광주지역 내 본사를 두고 있거나 지사·지점·연구소 등을 두고

있는 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된다.

선발은 7-8월 중 서류평가, 현장점검, 발표평가 순으로 이뤄지며 광주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대상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업 5개사 내외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4시까지며, 신청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작성된 서류는 공고문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광주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해 매출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지방주도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1억5천만원 검토

혼인신고 전후 1년 전세보증금·주택구입자금 대상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정부가 추진 중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혼인신고 전 1년-신고 후 1년 사이에 전세 보증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상속·증여세 개편사항이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증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현행 증여재산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초과분까지 사실상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1억-1억5000만원 수준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자 970만원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재산에서 기본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한 금액이다.

만약 결혼자금 공제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지면 1940만원의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하순 2023년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공제 한도 등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시립요양병원 파업 해법 모색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치협의회가 시립요양병원 파업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별 현황과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광주 시립요양병원 갈등 중재와 해법 모색을 위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집담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광주 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는 가운데 제2요양병원 노조도 이날 파업에 돌입해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시립요양병원 문제 외에

도 지방소멸 대응과 광주·전남 상생 방안 마련, 우회전 잠금 멈춤 범시민 캠페인도 안전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공동 의장인 정영일 광주 NGO 시민재단 이사장은 "협의회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때 제안된 의제 하나하나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간 고민이 필요한 의제도 섞여 있는 만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협의회를 통해 시민사회, 시의회, 행정부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인근)

-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 445평과 210평, 도로 좋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윤남면 내리 3,940㎡ (1,191평)

-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경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자본감소에 따른 주권신고 최고공고

당 회사는 2023년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60,000,000원 중 금158,400,000원을 감소하여 금1,600,000원으로 하고, 자본감소의 방법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양도받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후 주식수 16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2023년 8월 12일 이내에 의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대영농산 주식회사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234
대표이사 장성자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광욱(510315-XXXXXX)
- 최후주소 :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72
- 피상속인 망 김광욱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 6월 22호로 신청하여 2023년 6월 3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7월 10일
- 상속인 : 이영선(501128-XXXXXX)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72
- 신고기간 : 2023. 7. 10. ~ 2023. 9. 1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영선의 주소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고합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피고인 : 차나요타워킨(Chanayotha Wuthikorn)
- 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 2023년 7월 7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박현수

사찰 (금) 안내

- 위 치 :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 부 지 : 약 1,700평
- 가 액 : 9억
- 약사여래불 6m 있습니다.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108 돌탑 요사채 2동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답사 후 절중가능

문의 033-562-0448
휴대폰 010-3832-4317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3차)

본 회사는 2023. 5. 8.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 6. 1.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달 이내에 2023. 8. 1.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사단법인 남도어린이교육협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4-1 (충성동)
의장 청산인 김경자

산행안내

7월15일(토)

▲ 광주호산회 7월 15일(토) (제45차 정기산행) 강원도 안계 자치나루물 원님 트레킹) 오전 03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3시 40분 진월물욕고 및 03시 45분 백운우재로 03시 50분 롯데마트 전 04시 예술회관후문 01시-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